

“후배들엔 배움터 선배들엔 자극제 광주미술 소통창구”



18일 광주미술상 창립 2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역대 수상자인 임남진·송필용 작가와 우제길 운영위원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미술상 20년’ 우제길·송필용·임남진 좌담회

선배작가들 기금 출연
청년작가에 천만원 수여
역대 수상자 대부분 40대
우 “지역 미술계 큰 힘”
송 “뜻깊은 상 책임감도”
임 “인정받아 자신감”

“광주미술상은 선배 작가들 후배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후보자를 심사하면서 선배 간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상이기도 합니다.”

지난 1995년부터 매년 지역 선배작가들이 후배 작가 1명을 선정해 수여하는 광주미술상이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18일 창립 20주년을 기념 전시 ‘광주 미술 어제와 오늘’전이 열리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우제길(73)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위원장과 2회 수상자 송필용(57), 19회 수상자 임남진(45) 작가를 만나 ‘광주 미술상’ 20년을 돌아봤다.

“지역 선배작가들이 순수하게 후배들을 위해 기금을 내놓고 상을 주는 일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광주만의 문화입니다. 올해로 20주년이 됐는데 잘 유지시켜 지역 미술계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 위원장은 “광주미술상은 1992년 강연균 선생이 금호 예술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500만원을 후배들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으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후 1995년, 강연균, 황영성, 우제길, 고(故) 오승윤 등 당시 지역 원로·중진 미술인 46명이 기금 마련 전시를 열었고 1억원 이상의 기금을 모으며 재정적 안정을 확보한 후 광주미술상을 만들었다.

당시 창립총회를 가진 광주미술상 제정위원회는 매년 30~45세의 작가 1명을 선정해 상금 1000만원을 창작지원비로 수여하는 내용의 정관을 만들었고 1회 수상자로 광주미술인공동체를 선정했다.

2회 수상자인 송필용 작가는 “선배들 앞에서 작품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며 “뜻 깊은 상을 처음으로 수상하게 되서 기뻐도 또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들었다”고 밝혔다.

임남진 작기도 2년 전 수상했을 때를 떠올리며 “43세 때 광주미술상을 3수 끝에 받았는데 나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리다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약 작같이 준비한 생각이 난다”며 “상금도 상급이지만 선배들에게 일단 인정을 받았다는 측면이 작품활동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

광주미술상은 따로 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운영위원회(현재 53명) 전체가 심사에 참여해 광주 미술을 논의하고 세대 간 소통하는 과정이다.

“예전에는 광주 미술계에 한국화가 가장 많았어요. 지금은 젊은 작가들은 장르를 넘나들며 폭 넓은 미술세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미술상은 선배뿐 아니라 광주의 작품 세계를 가능해보는

중요한 척도입니다.”(송필용)

광주미술상은 서류·포트폴리오 심사와 작품 프레젠테이션 두 단계를 거쳐 수상작가를 선정하고 있다. 2015년 수상자는 오는 12월 선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광주 미술상 역대 수상자들은 대부분 40대다.

우 위원장은 “작가들이 어느 정도 경력과 연륜이 쌓이며 자신만의 작품 영역을 구축하는 시기가 40대”라며 “단순히 작품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광주미술상을 수상하기는 어렵고 인문학적 배경, 철학 등 자신의 작품 세계를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작기도 “이제 작가들이 단순히 작품에 신경쓰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미술인들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선배 작가들이 후배들의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역대 광주미술상 수상자 명단=광주미술인공동체, 송필용, 주홍·김동하, 문인상, 박동신, 이준석, 박종석, 주재현, 이이남, 조성호, 나명규, 김숙진, 김도기, 신창운, 임병중, 박현수, 김진환, 진시영, 박선주, 임남진, 박소진.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소빈 작 'In Love'

광주미술상 20주년 ‘광주미술 어제와 오늘’展 내달 15일까지 상록전시관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는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광주미술상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광주미술 어제와 오늘’전을 11월15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이 준비한 초대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황영성, 강연균, 우제

길 등 지역 미술계 원로 및 중견, 청년, 작고 작가에 이르기까지 회원 83명의 작품이 관람객들을 만난다. 서양화, 한국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서예 등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작품이 출품돼 관람객들은 한눈에 광주미술사 흐름을 조망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8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8회 수상자인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의 특별강연회가 열린다. 이 작가는 ‘결재정신, 고흐를 만나라’라 주제로 시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062-613-713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0월 광주 디자인에 빠지다

40국 2000명 참석 7일간 국제디자인총회
15일 개막 디자인비엔날레 관람객 줄이어

10월 셋째주 광주에서 잇따라 열린 디자인 관련 행사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2015 국제디자인총회가 지난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과 전남대에서 사전행사 국제학술대회·IFI총회 등을 열고 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40개국 2000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 디자인 축제다.

‘이음(Design Connects)’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와 단체가 참여한 다양한 토론과 전시회가 열리고 도시문화탐방, 팸투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17~18일 전남대에서는 500명이 참가한 국제학술대회와 디자인 초대전이 열렸고, 김대중센터에서는 학생 200명이 참여한 워크숍과 국제단체총회가 개최됐다.

국제디자인총회는 19일 개회식을 갖고 ‘디자인과 함께하는 미래’ 등을 주제로 한글로 디자인 리더들의 기조연설과 토론, 분야별 세션, 전시, 도시문화 디자인 서밋, 국제 디자인 학술대회 등을 20일까지 진행한다.

또 광주 비엔날레전시관에서 지난 15일 개막한 2015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는 누적 4570명의 관람객을 동원했다.

국내의 작가와 지역업체 10곳이 협업한 조명, 식기류 등 작품을 전시한 ‘광주 브랜드점’은 특색 있는 디자인과 아이디어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다.

또 한·중·일 생활용품 디자인을 선보인 2관 아시아 디자인 허브전에서는 3D 프린터로 제작된 로보 모형이나 공중에 매달린 ‘새연’을 선보인 일본관이 인기를 끌었다. 동서 가치의 융합 ‘신명’,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미래’, ‘한·중·일의 문화 가치’, ‘창의 혁신’ 등 4개의 주제로 10회 진행된 ‘디자인 콘서트’(16~17일)도 매회 50명 이상이 참여하며 국내외 강연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17일 오전 10시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강의실에서 미국 일리노이대학 빅터 마골린(74) 교수가 디자인총회 강의를 하다 갑자기 쓰러지며 머리를 다쳤다. 마골린 교수는 다행히 이날 오후 의식을 찾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민족미술협회 ‘우공이산’展

21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작품 35점 출품

중국 ‘우공’이라는 노인은 자신의 집 앞을 막고 있는 산을 조금씩 허물어 옮겼다. 남들은 어느 세월이 지나나며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노인은 자신이 못하면 자신의 후대가 할 것이라고 멈추지 않았다. 이를 본 옥황상제는 결국 산을 옮겨주게 된다.



김화순 작 '바람이 불어'

광주민족미술협회(이하 민미협)가 2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세번째 전시 ‘우공이산’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규표, 김병택, 심우상, 오지근, 유영대, 이관수, 정진영, 최병진 작가가 참여해 회화, 사진, 조소, 공예 등 작품 35점을 출품한다.

김규표의 ‘세월’은 화폭 가득 채운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초승달을 통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어딘가 기댈 수 있는 희망이 느껴진다. 김화순의 ‘바람이 불어’도 세찬 바람 속 묵묵히 자리잡고 있는 둥근달의 묵직함이 느껴진다.

주제 ‘우공이산’은 민미협의 정신이다. 미술에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의미한다. 조금씩 자신들의 과제를 이루어나겠다는 의지를 이산(移山)에 빚고 있다.

민미협은 예술로서 주장하고 예술로서 행동하고 예술로서 감동을 주기위해 작가들이 소양과 자질을 개발하고 자기 철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고 외친다. 문의 062-222-8053. /김용희기자 kimyh@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리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프랑스가구 런칭



이태리가구, 소품



명화가구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가구빌딩 7개층

☎ 1899-0240